

익산 고구마, 맥도날드와 만나다

‘한국의 맛’ 다섯 번째 주인공… 내일부터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머핀 판매 시작

익산 고구마가 세계적 외식 기업 ‘한국맥도날드’와 만나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오는 10일 전국 400여 개 매장에서 신제품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와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머핀’의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신제품은 2021년부터 맥도날드가 시작한 ‘한국의 맛(Taste Of Korea)’ 캠페인의 다섯 번째 주인공이다. 달콤한 익산 고구마와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의 환상적인 조화가 특징이다.

특히 버거와 함께 출시되는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머핀’은 한국의 맛 프로젝트에서 세 번째로 나온 맥도날드 메뉴다. 고구마 크로켓과 신선한 토마토를 조합해 아침에도 부담 없이 든든하게 즐길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농산물을 전국 단위의 판매망과 연결함으로써 농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가소득 안정화를 이루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연초부터 고구마 재배 농가·농협 등과 수급 차례의 협



의 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이번 협력으로 익산에서 200여 톤의 고구마가 소비됐다.

익산 고구마는 미륵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비옥한 황토밭에서 재배되는 데,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워 전국에서 품질 좋은 고구마로 인정받고 있다.

‘익산 고구마’의 명성에는 익산시와 지역 농가의 정성 어린 노력이 깃들 어있다. 우선 익산시는 바이러스에 강한 조직배양묘를 공급하고 비료나 농약 등 필요 농자재도 함께 지원해 건강한 고구마를 생산하도록 돕는다.

각 농가에서는 곁흙과 속흙을 바꿔주는 심토반전 작업을 통해 연작 장애와 병해충을 예방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등 체계적 재배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 고구마의 상품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우리 익산 농산물의 우수성이 전국 소비자 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업체와 함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맥도날드 익산영동DT 매장에서 판매 첫날에 한해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구매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또 익산시는 7월 말까지 고향사랑기부에 10만 원 이상 기부 시 이벤트 상품으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세트’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축제학교’ 운영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축제에 전문가 컨설팅 제공

맞춤형 상담·실무 경험 전수 프로그램 본격 추진

군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축제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5년 제1회 찾아가는 축제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기관의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에 소속된 축제 전문가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실무 경험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찾아가는 축제학교’는 단순한 강의식 교육을 넘어, 현장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기획·예산 운영·홍보 전략·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축제 운영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며, 주민 주도의 축제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주민축제 컨설팅 지원 모델인

만큼 자율성과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지역 고유의 축제를 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축제학교’는 군산시의 행정 역량과 주민의 창의성을 연결하는 새 축제 플랫폼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지역의 고유한 색을 지키면서도 전문성과 매력을 더한 축제가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2025년 제1회 찾아가는 축제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모임이나 단체는 ‘군산시간 여행축제’ 누리집(<https://festival.gunsa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군산 시청 관광진흥과(☎063-454-330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축제들 가운데 주민 주도성이 높고, 교육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곳을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국립군산대, 제주 국토대장정 발대식

‘폭삭 걸었수다’ 주제로… 14~18일까지 약 100km 도보 여정 진행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7일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국립군산대 국토대장정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의미있는 여정을 기원했다.

2025학년도 국토대장정은 국립군산대학 총학생회가 주관하고 학생처의 후원 아래 진행되며, ‘폭삭 걸었수다’라는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7월 18일 까지 4박 5일간 제주도를 도보로 횡단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발대식에는 참가 학생 42명과 교직원, 총동문회 임원진 등이 함께했으며, 행사는 사전 안전교육, 학생대표 선서,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폭삭 걸었수다’는 제주 방언으로 ‘정말 많이 걸었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공동체 의

식을 키우고, 도전 정신과 체력을 기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약 100km의 도보 여정으로 구성됐다.

국립군산대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격려사를 통해 “국토대장정은 단순한 걷기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이다”며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립군산대 총학생회 임주예(환경공학, 4) 회장은 “이번 국토대장정은 단순한 걷기 행사를 넘어, 우리 학생들 이 하나 되어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민관이 함께 만든 안전도시… 익산시, 유공자에 표창 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한 13개 기관·단체 소속 20명 대상



익산시가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온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시는 8일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한 실전 대응 능력 향상

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은 익산시청에서 열렸으며, 훈련에 적극 참여한 13개 기관·단체 소속 20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

들은 훈련의 기획부터 현장 대응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앞서 5월,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초동 대응 △인명 구조 △이재민 대피 △수습·복구 등 재난 초기부터 복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천처럼 진행했다.

특히, 실제 풍수에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청소년의회, 1년간의 자치 여정 마무리

제1대 의회 정례회·해단식 개최

익산시청소년의회가 청소년 정책 참여 기반을 다지는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는 8일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대 익산시청소년의회 정례회 및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4년 출범한 제1대 청소년의원들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마지막 정례회와 함께 공식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단식으로 마련됐다.

익산시청소년의회는 총 20명의 청소년의원으로 구성돼 △문화예술 △교육 복지 △환경행정 3개 분과위원회를 중

심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캠페인과 토론회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주도적인 자치활동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해단식에서는 청소년의원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으며, 모범적으로 활동한 우수 의원에게 표창이 수여돼 의미 있는 마무리를 장식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

